

사람중심 미래도시 맞는가?

임말숙 의원

양운초 사거리 언론보도 (2020.05.15)

KBS NEWS

분야별 ▾

시사·다큐 ▾

뉴스9

취재K

정보K

글로벌K

스포츠

크랩

해운대 신시가지 지하 온수관서 댕새뺨 수증기

입력 2020.05.18 (20:23) | 수정 2020.05.18 (20:23)

뉴스7(부산)





해운대신도시 도로 땅 밑에서 수증기 분출...주민 불안

연합뉴스 | 2020.05.15. | 네이버뉴스 |

땅 지표면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도 촬영한 영상을 보면 3차선 도로 중 2차선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해운대신도시에..."



부산 해운대구 3차선 도로 갈라지고 엄청난 수증기 분출

서울신문 | 2020.05.15. | 네이버뉴스 |

땅 지표면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도 촬영한 영상을 보면 3차선 도로 중 2차선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해운대신도시에..."



해운대신도시 도로 땅 밑에서 수증기 분출...KBS | 2020.05.15. | 네이버뉴스 |

오늘(15일) 밤 9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 땅 밑에서 수증기가 분출됐습니다. 수증기는 편도 3차로 도로 가운데 2차선 도로 아래에서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오늘 오후 해운대신도시에...



해운대신도시 도로 맨홀에서 수증기 분출...주민 불안 | 국제신문 | 2020.05.15. |

땅 지표면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도 촬영한 영상을 보면 3차선 도로 중 2차선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분출되고 있다.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해운대신도시에..."



도로 땅 밑에서 수증기가? ...해운대신도시 주민들 '불안'

한국경제TV | 2020.05.16. | 네이버뉴스 |

땅 지표면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도 촬영한 영상을 보면 3차선 도로 중 2차선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해운대신도시에..."



KBS 뉴스 외 6개 신문 언론보도
(연합, 국제, 서울, 한국경제, 매일경제, 스포츠 조선)

양운초 보수 현장 사진



연합신문 자료 (2018.11.20)

해운대 신도시 난방공급 시설, 노후화로 열 손실 ↑

송고시간 | 2018-11-20 18:03



조정호 기자



해운대 집단지에너지공급시설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에서 노후화로 열 손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말숙 해운대구의원은 20일 열린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해운대 신시가지 내 집단지에너지 공급시설이 1996년에 준공되어 아파트 4만3천 가구와 공공용 시설 64곳에 중 온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노후화로 인한 열 손실이 2015년 7.1%, 2016년 7.3%, 2017년 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집단지에너지 사업소가 지난 6월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열수송배관 72km를 전수조사하는 용역을 발주했다"며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누수 부분을 조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017년 6월 준공한 부산그린에너지가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열(95도 이상)과 저온열(65도 이하)을 집단지에너지 공급시설에 판매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저온열의 무상 공급 또는 단가인하를 통해 주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20 18:03 송고

백석역 수송관 파열 (2018.12.04)

뉴스홈 | 최신기사

백석역 근처 난방공사 배관 파열...1명 사망·22명 부상(종합3보)

송고시간 | 2018-12-04 23:33



백석역 수송관 파열 사진



중동 온천수 배관 파손 (2018.12.05)

부산서 땅속 배관 터져 52~54℃ 온천수 '칼칼'(종합)

송고시간 | 2018-12-05 17:45



조정호 기자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도로 통제하고 7시간 만에 복구 완료



해운대 온천수 도로 분출 복구작업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모 호텔 앞 땅 밑에 설치된 온천수 관로가 부식으로 파손되면서 52~54℃ 온천수가 도로 위로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력을 투입,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8.12.5

ccho@yna.co.kr



노후관 터져 56도 온천수 칼칼...부산도 발칵이 위험하다

국제신문 | 2018.12.06. | [🔗](#)

지난 4일 낮 12시에 해운대구 중동 해운온천 근처에서 온천수 관로가 10cm가량 터져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상수도본부는 잇따른 사고가 염려이 많은 해수온천이 관로를 부식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부산에선 "온천수가 칼칼"...해운대 관로 터져 도로통제

노컷뉴스 | 2018.12.05. | [네이버뉴스](#) | [🔗](#)

5일 부산 해운대에서 땅속에 매설된 온천수 관로가 터져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전 9 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모 호텔 옆 도로와 통신 맨홀에서 온천수가 끓어져 나왔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부산서 땅속 배관 터져 52~54℃ 온... SBS | 2018.12.05. | [네이버뉴스](#)

부산 해운대서 '노후 관로' 사고...56... 이데일리 PICK | 2018.12.05. | [네이버뉴스](#)

부산서 땅속 배관 터져 52~54℃ 온... 연합뉴스 | 2018.12.05. | [네이버뉴스](#)

부산서도 뜨거운 물 도로 위로 분출... 연합뉴스 | 2018.12.05.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14건 전체보기 >](#)



온천수 관로 파손으로 도로통제 KNN | 2018.12.05. | [🔗](#)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중동의 한 호텔 앞 도로위로 수온 56도가 넘는 온천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행정당국은 지하 50미터에 있는 온천수를 끌어올려 해운대 지역 목욕탕 등에 공급하는 온천수 관로 일부가 부식 현상으로...

부산 도로에 매설된 관로 파손으로... 뉴시스 | 2018.12.05. | [네이버뉴스](#)

부산 해운대 온천수 관로 부식 온천... 로이슈 | 2018.12.05.

해운대서 호텔 인근 노후관로 파손... 뉴스1 | 2018.12.05. | [네이버뉴스](#)

백석역 이어 부산도 노후 관로 파손... 부산일보 | 2018.12.05.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7건 전체보기 >](#)

연합신문 자료 (2018.12.07)

20년 넘은 해운대신도시 지역난방 배관 곳곳 누수·열손실

송고시간 | 2018-12-07 08:37



조정호 기자

| 부산환경공단 긴급점검...내년부터 단계적 보수공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신도시에 난방용 열 수송 배관이 지하에 매설된 지 20년이 넘어 곳곳에서 누수와 열 손실 등 노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일 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1996년 준공된 해운대신시가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해운대구 좌동과 중동 일부 등 4만4천여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해운대신시가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연결된 열 수송 배관은 74.5km.

부산환경공단은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열감지기, 산성도(pH)측정기 등을 활용해 매일 열 수송 배관을 점검하고 있는데 배관 노후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열 수송 배관 보수는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11건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임말숙 해운대구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해운대구의 회 본회의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열 손실이 2015년 7.1%, 2016년 7.3%, 2017년 8.1%로 증가추세를 보여 노후한 열 수송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운대신도시 일대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20년 이상 지났지만 배관상태 진단과 긴급보수는 어렵고 중장기적인 보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환경공단은 부산시와 협의해 1억7천600만원을 들여 올해 6월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해운대 열 수송 배관 기본·정밀진단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노후 열 수송 배관을 단계적으로 보수하는 중장기 대책과 보수공사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서울지역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아 배관 내 압력은 2분의 1, 배관 크기는 4분의 1 수준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하지만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위험에 노출된 만큼 일상점검 이외에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수송 배관 보수공사 현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월까지)
횟수	10회	12회	14회	10회

자료출처 : 해운대 환경공단

감사합니다.